



'희망의 전도사' 나비... 소통·화합 전파



한 옥마을에 위치한 전주미술관(관장 김완기)이 지난달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나비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19인의 콜라보레이션(협업) 전시 '한옥마을로 날아든 나비'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나비와 한옥마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희망과 소통,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옥마을의 특징에 부합하면서도 콘텐츠 확장과 문화융합을 통한 학자와 예술가의 협업 및 양질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의 질을 높이고 향유의 다양성 미션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두 달이라는 짧은 여정의 대항연을 시작한 이래 지금은 종착점을 치닫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나비와 함께하며 전남 함평의 나비대축제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으로 함평곤충연구소를 역임한 정현천 나비박사와 전북에서 활동하는 예술분야 중견작가들의 콜라보로 총 50여점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나비박사 정현천의 결실인 한국내비

와 감충표본 작품 16점을 비롯해 지역 대표로 강수호, 김광희, 김영선, 김영실, 김주연, 김태이, 김현미, 노정희, 백영란, 유기준, 이우령, 이진숙, 이현숙, 조현동, 최동순, 최미남, 한순애, 한은주 작가가 참여했다.

한옥마을로 마실 나온 수줍은 처녀의 뒷모습을 담은 작품 '마실길'과 한옥마을에 날아든 나비를 일상적 풍경과 소소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자연속에서17-II', 사물과 회화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소소한 행복이아말로 진정한 부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묘금도부귀도', 자연 공감을 토대로 자연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표현한 '공감-채집' 등 나비를 소재로 한 각 분야 작가들의 콜라보를 만나 볼 수 있는 이색 전시전.

전시연계 미술체험으로 '나비부채에 호접도 그리기'와 강연프로그램 '아티스트토크II-작가와와의 대화' 나비박사 정현천의 문화곤충이야기'가 지난달 31일 도민의 소통과 호응 속에서 신성한 문화나눔으로 전개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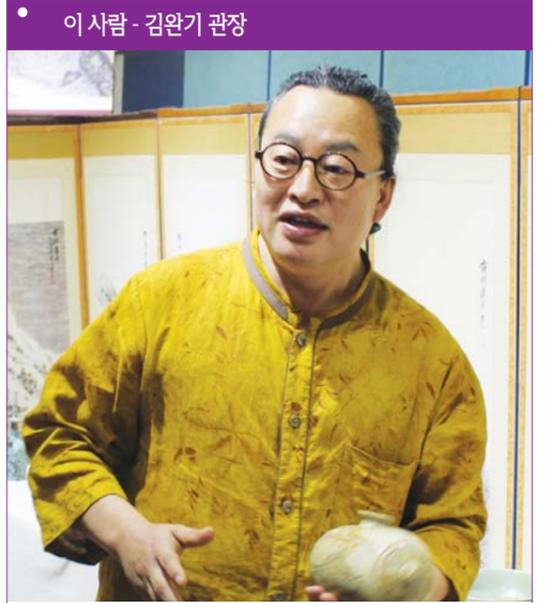
전주미술관 최미남 학예실장은 "자연의 나비와 작품 속 나비가 합축하고 있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한옥마을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재방문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기획됐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리생애 봄날-독거노인 체험'을 무료로 진행하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정현천 나비박사와 도내 중견작가들의 콜라보 50여점 작품 소개

최미남 학예실장 "볼거리 제공해 재방문 이뤄지도록 전시회 기획"



이 사람·김완기 관장

"전주라는 도시 품격 높여 시민들 삶 여유롭게 만들 터"

"예술로서의 본연의 의미도 있지만 꽃밭에 나비 날듯 전주의 자랑인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무시로 모여들어 지역이 흥성하고 그 흥성이 시민들의 삶을 보다 여유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전주미술관을 이끌고 있는 김완기 관장(51)은 전주 토박이답게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특히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척박한 지역 문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년 전인 2013년에 지금의 자리인 르윈호텔 지하 1층에 갤러리를 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는 전시가 기획되면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연계 운영한다. 그야말로 관객

2013년부터 지금까지 르윈호텔에 갤러리 운영

미술을 좋아하는 어머니에게서 영향받아

특정작품 편중되지 않고 고가구·서화전도 전시

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그는 미술관을 운영하기 전에는 가사 쓰고 작곡 해서 노래 하는 이른바 심어승 라이터였다. 그러던 그가 미술관을 열게 된 결정적 동기는 어머니 때문.

그의 모친은 젊어서부터 그림과 서화 등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수집하는 고상한 취미를 갖고 계셨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돼 집에 쌓여 있는 사연있는 작품들을 혼자 보기 아까워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혼자 발로 뛰며 운영경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늘 빠듯해서 사비가 들어간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도 그는 이 일이 좋아 앞으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문턱 낮은 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부터 외국인, 청소년, 지역출신 작가 등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 그들의 예술혼을 한껏 발산시켜 주고 있다. 또 연중 기획전 중 30%는 우리 지역의 가치 있는 작품들을 찾아 전시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정 작품에 편중되지 않고 고가구, 자수, 불교미술, 초상화, 서화전도 활발히 전시해 나간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의 이런 구상이 계획대로 실현되면 전주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품격 있는 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그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이 마음에 와 닿았다.



최미남 학예실장

소통하는 문화공간... 전주미술관은 학생들에게 '문화 조력자' 복합공간 기능 수행

언뜻 특급호텔 지하하면 나이트클럽이나 오락시설, 사우나 등이 연상됐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갤러리가 튀리를 들고 있어 신선했다.

전주미술관은 한옥마을에 자리한 르윈호텔 지하 1층 300여평의 공간에 1, 2, 3 전시관과 50석 규모의 세미나

실을 갖춘 전주의 대표적 1층 사립 미술관이다.

등록된 소장품 이외에도 1만여점이 넘는 현대작품과 한국고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공간은 3개의 상설전시관을 비롯 체험관, 수장고, 학예실, 관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미남 학예실장의 주도로 해마다 5~6회의 기획전과 특별전,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밖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주미술관 속 진로체험이 있다. 이 밖에도 전통한지 부채 만들기, 고무신 꾸미기, 컵, 블링블링 파우치, 예코백, 손수건, 티셔츠 만들

기 등 다양한 상설체험을 할 수 있다. 전주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고 학생들에게 문화 조력자가 되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